

국경과 인종 초월해 함께 사는 세상 염원

▶ 커버스토리/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 카드섹션 참가자들

불기 2561(201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세계 각국 사람들과 함께 본지 불족특집호 1면을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 카드섹션으로 구성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찬탄하고 모두가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올해 불족표어처럼 국적이나 인종, 성별 등에 차별 없이 부처님오신날을 즐기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한 뜻도 담겨 있다. 부처님오신날은 한국 불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카드섹션을 위해 중남아 아프리카에 건립한 교육도량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학생과 국제개발기구 NGO인 지구촌공생회와 로터스월드,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등 총 12명이 흔쾌히 마음을 보냈다. 카드섹션에 동참한 12명은 국가와 인종, 성별과 연령은 모두 다르지만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마음만은 하나였다.

국민 95%가 불교를 믿는 라오스. 지구촌공생회가 설립한 단둥중학교에 다니는 에니(12세)양은 한국불교 큰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에니 양은 "매일 학교 점심시간에 지구촌공생회 공생청소년센터를 방문해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즐겁다"며 "한국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것에 매우 기분이 좋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원생 보라(15세)양도 부처님오신날 로터스월드 아동센터 법당인 마하시에서 3배를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보라 양은 "로터스월드의 도움으로 즐겁게 생활하며 학교도 잘 다니고 있다.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에도 마하시라는 한국사찰이

12명 배경 모두 다르지만
축하하는 마음만은 '하나'
'한국식 삼배'로 감사의 뜻도...

있다"며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과 한국에서 도움주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마하시 법당에 가서 한국식으로 부처님께 삼배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가 낯선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학생 아우렐리아 안소니 마훈디(21세)양은 "학교를 지어 주신 한국불교에 감사드립니다. 스님의 학교 생활하는 모습과 시간을 지키며 예불과 선 제조를 지도하는 것이 좋았다. 불교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소개하며 "모든 것은 마음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레인보우합창단 어린이들이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 카드섹션용 카드를 직접 만들고 있다.

신재호 기자

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명심하고 실천하는 올바른 불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이뤄진 '레인보우합창단'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린이들답게 친진난만한 소원을 빌었다. 한국다문화센터가 지난 2009년 7월 창단한 레인보우합창단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캐나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과테말라 등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했다. 국내 정기공연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 평화의 날 기념식에 참가해 공연하는 활발

한 활동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레인보우합창단원 베리인미나(11세)양은 뮤지컬배우가, 진유정(11세)양은 부처님이, 진유리(8세)양은 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문운수(12세)군은 "노트북이 갖고 싶다"고 했고, 크리쉬준(11세)군은 세계 평화를, 박운주(12세)양은 통일을 발원했다.

연등회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들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염원했다. 서포터즈들은 연등회 연등행렬과 전

통문화마당, 부처님오신날 불족법요식까지 주요 불족행사에 참가해 통역과 안내, SNS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포터즈 브랜드 에릭 시몬스(35세)씨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암으로 잃었다. 이 때문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그의 꿈은 "모든 세상의 암환자들의 쾌유와 건강"이다. 안토니오(29세)씨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파브레가스(26세)씨도 "세상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평화가 주어지기를, 개인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통도사 도량 2000개 등으로 장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 도량이 구룡등과 학등을 비롯한 2000여 개의 다채로운 대형장엄물로 장엄됐다. '통도사 창건 설화'를 주제로 한 도량 내 장엄물 장엄은 일주문을 기준으로 경내에는 수행도량으로서 차별하고 전통적인 한지등을 배치했으며 일주문 밖으로는 화려하고 독특한 등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한다. 부산울산지사=송정은 기자



"자비 실천...국민행복 지킬 것" 경찰불자들 부처님오신날 봉축

14만 경찰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포교원 경찰전법단은 지난 4월25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27일에는 서울경찰청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총무부장 지현스님(경찰청 경승실장)과 경승, 이철성 경찰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해 국민 행복과 안전을 기원했다. 경찰전법단장이자 경찰청 경승실장 지현스님은 "법회에 참석한 인연으로 국민이 행복하도록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경찰불자들의 서원이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축원하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4월25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에서 관불하는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이철성 경찰청장.

"부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 종교를 초월해 소중한 인류의 지혜가 돼 주고 있다"며 "14만 경찰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들을 치하했다. 이어 올해 부처님오신날 불족표어인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에 대해 설명한 스님은 "차별 없는 세상은 공정한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내용"이라며 차별 없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중심에 경찰이 있다는 것과 14만 경찰이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4월27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봉축법회에는 포교원장 자승스님과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원명스님(서울 북은사 주지),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현경 기자 eonaldo@bulgyo.com



가르치는 대학



불기2561(2017)년 부처님오신날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세계를 움직이는
정사각, 양성
대학

Dongguk University
Gyeongju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합인재를 키웁니다.

2018학년도 융합학부제 신설하여 학생의 전공 선택권 강화 기초교육 강화, 전공심화 교육으로 제대로 공부시키는 대학

2018학년도 새로 바뀌는 융합학부 및 전공		
과학기술 대학	생명신소재융합학부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창의융합공학부	바이오제약공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ICT·빅데이터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상경대학	경영학부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2018학년도 동국대 의과대학 의과과 신입생 모집

• 교육부 선정 8년 연속 '잘 가르치는 대학' ACE 대학(2011~2018) • 교육부 대학특성화(CK) 사업 선정(2016) •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지원센터사업 선정(2016)



web.dongguk.ac.kr